

비료값 전격 인상 등 농자재값 폭등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1. 비료의 시중 시판 현황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라면 누구나가 비료를 쓰고 있다. 그런데 2008년을 기점으로 농사의 과반수 이상의 금액을 사용하는 비료값이 또 다시 평균 25% 인상되면서 농민들의 허리가 다시 휘게 됐다.

지역적으로는 제주도에서 가장 사용량이 많은 요소가격은 포대당 9,750원에서 12,400원으로 2,650원, 염화가리는 7,850원에서 9,400원으로 1,550원, 21복비는 9850원에서 1만2,950원으로 3,100원이 올랐다. 콩 비료는 6,300원에서 7,350원으로 1,050원, 보리 비료는 7,800원에서 9,450원으로 1,650원이 각각 인상됐다.

2. 농협의 주장 및 해명

농협은 현재 비료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을 비료 소비량

급증과 원자재값 인상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선진국의 에너지 정책이 화석연료(석유 등)에서 곡물 에너지(바이오디젤유 등)로 전환됨에 따라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곡물 재배면적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비료 소비량 급증 및 비료원료 부족으로 이어져, 최근 6개월간 요소·인광석·유황 등 비료 원재료 가격이 30~90% 폭등했다는 것이다.

또한 비료 원료의 8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재값 인상으로 인해 국내 비료 생산가가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3. 비료 관련 국제 원자재값 인상 현황

- 요소 : (' 07)299\$/톤 → (' 08 전망)390\$/톤 (30% 증가)
- DAP : (' 07)414\$/톤 → (' 08 전망)560\$/톤 (35% 증가)
- 유황 : (' 07)98\$/톤 → (' 08 전망)200\$/톤 (104% 증가)
- 염화가리 : (' 07)206\$/톤 → (' 08 전망)374\$/톤 (82% 증가)

<원재료 구성비별 인상 요인>

(단위 : %)

구분	원 재료						기타 (운임비)	계
	요소	암모니아	인광석	염화가리	DAP	유황		
인상요인	10.7	0.1	3.4	6.6	0.7	1.0	7.3	29.6

<비료가격 인상 내역>

(단위 : 포, %)

비 중	현 행		조 정		대 비	
	구매가(A)	판매가(B)	구매가(A)	판매가(D)	C/A	D/B
요소	9,040	9,750	11,560	12,400	28	27
21복비	9,120	9,850	11,980	12,950	31	31
쌀맛나	6,650	7,100	7,940	8,500	19	20
평균	8,089	8,695	10,096	10,817	25	24

4. 농협 화학비료 가격 인상의 문제점

- ① 12월 27일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틈타 기습적인 가격인상 - 사전에 조합원 공지 등 절차 문제가 있음
- ② 2007년 총 6.5% 인상을 더하면 약 30% 인상 - 2월 2.7%, 6월 3.8%에 달함
- ③ 농자재 가격 안정이라는 신임 농협중앙회장 공약 위반
- ④ 기존 확보물량에 대해서도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 시도 - 08년 1월 2일에 전산조작 등록이 가능하니 그 때까지 판매를 잠정 중단하든지 12월 28일 이후 판매 분에 대해서는 인상가격으로 처리하도록 지침 하달
- ⑤ 판매차익이 현행보다 확대
 - 요소 : (현행) 710원/포 → (조정) 840원/포 - 21복비 : (현행) 730원/포 → (조정) 970원/포
 - 쌀맛나 : (현행) 450원/포 → (조정) 560원/포 - 평균 : (현행) 606원/포 → (조정) 721원/포
- ⑥ 농협 자체 지원 없이 농가에게 부담 전가

5. 비료값 상승 관련 한농연의 대응 활동

이에 본 연합회의 박의규 중앙회장 및 임원들은 7일(월) 오전 11시 농협중앙회 서대문 중앙본부를 항의방문하여 최원병 신임 농협중앙회장과 김경진 농업경제대표이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농연은 김농협중앙회의 비료값 24% 인상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를 즉각 철회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농연은 농협중앙회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농협중앙회에 전달하였다.

- ① 12월 27일자 시행 공문 철회
- ② 비료업체와 계통출하 가격 재협상
- ③ 농협 비료 가격 인상요인에 대해 책임
- ④ 1월 15일까지 농협의 책임 있는 답변 촉구

농협은 비료값 인상 요인을 업체들에게 최대한 흡수시켜 24%만 인상했다는 입장이지만, 한농연은 성명서를 통해 “연간 1조 5천억원의 순이익을 내는 농협이 비료값 인상을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농연은 앞으로 농협중앙회와 비료업체의 부당한 비료값 24% 인상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6. 각종 농자재값 인상에 대한 근본대책이 절실

하지만 이번 비료값 24% 전격 인상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농약·사료·농어업용 유류 및 각종 농자재값이 전 세계적인 원자재 파동 속에서 줄줄이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료 등 각종 농자재값 인상에 대응하여, 농민단체 및 업계 등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정부·농협·농자재업체 등의 공동 노력을 통해 근본적으로 농자재 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정책 부활을 포함한 각종 가격안정 정책과 농축산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영구화와 같이, 농가경제를 보호하고 물가 급등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근 이상배 국회의원 등이 인수위에 비료가격 차손보전 정책을 부활시킬 것을 요구하는 등 정치권도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농연은 올해 핵심사업 중 하나로 비료·농약·사료·농어업용 유류 등에 대한 가격 안정대책과 함께, 농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영구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12만 농업경영인과 350만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